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권 1호 (2016년 3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 위험회피 기질과 회고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 김윤정 · 이옥경 · 이해원 · 조영일 · 이원혜
- 감사성향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와 긍정적 재해석의 매개효과:
관계 상실 경험 중년을 대상으로 김아라 · 이승연
-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에 따른 군집 유형과 영역별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 백지희
- 의심의 기술 발달: 선택적 신뢰와 증거성 추론
..... 최영은
- 여대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 이현정 · 이승연
- 만 5-6세 한국 아동의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는 양육자 요인
..... 김은영 · 송현주

발행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인 : 정영숙(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심리학과 (내)
전 화 : 051-510-2135

인쇄일 : 2016년 3월 15일
발행일 : 2016년 3월 15일
제작처 : 책과공간
(02-725-9371)

편집위원장 : 송현주(연세대학교)

편집위원 : 권미경(U.C Davis) 김은영(순천향대학교) 김혜리(충북대학교) 노수림(충남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최유정(Yale University)

심사위원 : 권미경(U.C Davis) 김근영(서강대학교) 김민희(한국상대학원대학교) 김수안(서울대학교)
김수정(서울대학교) 김애순(연세대학교) 김연수(서울대학교) 김현정(이화여자대학교)
김혜리(충북대학교) 문혁준(가톨릭대학교) 박수현(연세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성현란(대구가톨릭대학교) 손정락(전북대학교) 송현주(연세대학교) 신나나(이화여자대학교)
신유림(가톨릭대학교) 신주혜(가톨릭대학교) 오영희(덕성여자대학교) 유연옥(계명대학교)
이경남(동아대학교) 이병호(덕성여자대학교) 이수진(경일대학교) 이순묵(성균관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장은영(한양대구리병원) 장은진(침례신학대학교)
장혜인(성균관대학교) 정명숙(꽃동네대학교)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진경선(연세대학교)
최형성(신라대학교) 한기백(서강대학교) 황순택(충북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한국심리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29, No. 1

March 15, 201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ublished quarterly-annually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Editor : Hyun-Joo Song(Yonsei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Mee-Kyoung Kwon(U.C Davis) Eun-Young Kim(Soonchunhyang University)
Hei-Rhee Ghim(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o-Rim Noh(Chungnam National University)
Young-Shin Park(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yeon-Jin Lee(Yeungnam University)
Yoon-Kyoung Jeong(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You-Jung Choi(Yale University)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29 권 제 1 호 / 2016. 3.

위험회피 기질과 회고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김윤정 · 이옥경 · 이해원 · 조영일 · 이원혜 / 1

감사성향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와 긍정적 재해석의 매개효과:

관계 상실 경험 중년을 대상으로 김아라 · 이승연 / 25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에 따른 군집 유형과 영역별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 백지희 / 47

의심의 기술 발달: 선택적 신뢰와 증거성 추론

..... 최영은 / 63

여대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 이현정 · 이승연 / 83

만 5-6세 한국 아동의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는 양육자 요인

..... 김은영 · 송현주 / 101

한국발달심리학회

감사성향과 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와 긍정적 재해석의 매개효과:
관계 상실 힘 중년을 대상으로*

김 아 라 이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심 학

이
이 지 대 살펴보았다. 이 위 을
한 만 40-60세 335명(남: 147명, 여: 188명) 설문자료 분 었다. 조방 식 분
결 , 이 이 각각 효 나
타냈으며, 이 을 순차 으로 거쳐 미치
이 효 나타냈다. 이러한 결 바탕으로 을 겪 들이
을 이룰 수 록 돕 효 입 전략 대 논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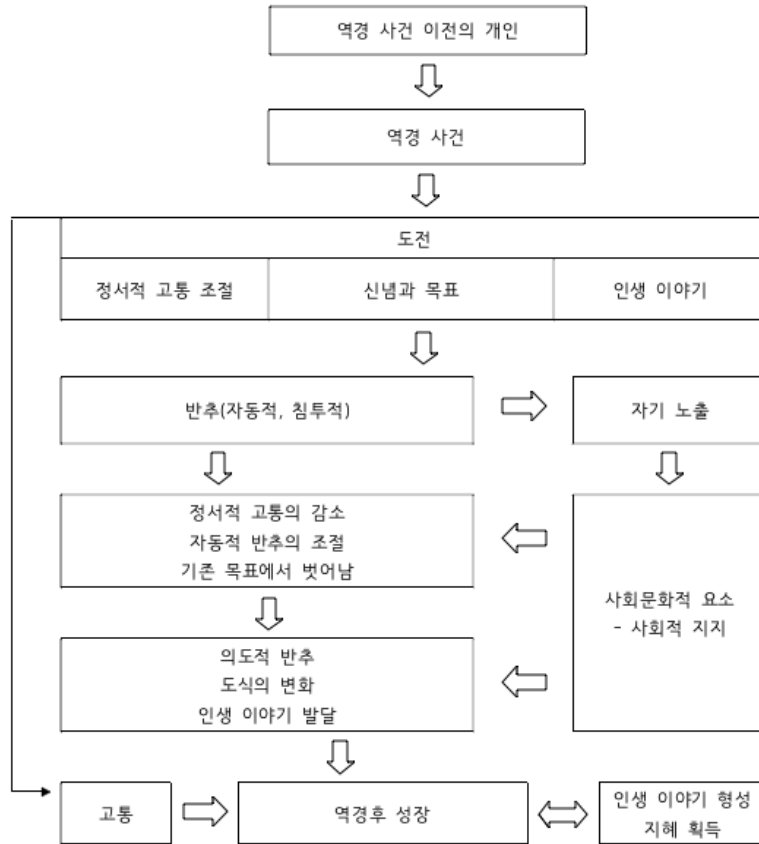
* 김아라 2016 학위 논문을 수 보완한 것임.
교신저자: 이승 , 이화여자대학교 회 학대학 심 학 , (120-750) 을시 대문 이화여대길 52
E-mail: see1@ewhaackr

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누
 나 한 번쯤은 겪 문제다. 요람 무덤
 까지 전 생애 발달을 어느 때라
 을 할 수 지만, 가까운 람들
 죽음을 면 앞으로 다가올 자신 죽
 음 대한 필 생 한 느끼
 (Whitbourne, 2001) 은
 더욱 주목할 만 다. 발달단 특
 부모 죽음을 시작 고, 자녀
 으로 한 을 느낄 뿐 아니라
 다양한 변화 겪 시 로
 (Thoits, 1995), 이들은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다양한 대 별, 이혼, 이별 같은 다양
 한 종류 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우 모두가 겪을 수
 밖 없 문제이고 우 응 당한 영
 력을 행 발달 건입 불 고,
 아직까지 국내 이 련한 통 조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으며, 련된
 소수 주로 임 집단 혹은 대학생
 대 으roman 진행되어 왔다. Levinson(1978) 따
 르면 만 40-65세로 되고, 우 나
 라 우 보통 만 40-60세로 규 고
 데 2014 행 자치부 통 따르면
 40-59세 전체 33% 당한다. 이러
 한 다양한 발달
 결 대 이제 심을 올일 필요
 가 다.
 은 외 혹은 건 나로,
 외 이란 삶을 강 게 뒤흔들만한 극
 심한 스트레스 건을 미한다(Tedeschi &
 Calhoun, 2004). 이러한 삶 을 한 결
 따라 우 다양한데, 이들 일
 부 외 스트레스 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우울 같은 임 애 보

이 한편, 어떤 람들은 그로부터 회복 여
 비교 잘 응한다. 그 뿐 아니라 오히려 외
 이전 능을 뛰어 넘 을
 람들이 존 한다. 지금까지 외
 한 들은 주로 부 결 나 신
 애 초점을 맞 었 데, 최근 심 학
 대두 함께 외 이 나타나
 변화 혹은 단순한 응을 뛰어 넘
 심을 올이게 되었다. Tedeschi
 Calhoun(1995)은 이 외 (posttraumatic
 growth; PTG)으로 처음 었 데, 외
 이란 외 및 위 건을 한
 게 나타나 변화로 이
 투쟁한 결 로 얻게 되 것이다
 (Linley & Joseph, 2004; Tedeschi & Calhoun,
 1995). 이처럼 같은 건을 고 어떤
 람들은 부 응을 겪 면 또 다른 람들
 은 을 한다면 외 련한
 체 제 것은 우 요 며,
 이 이 람들 응
 을 돕 위 효 입 예방 전략을 마
 련 데 여 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들 이러한
 련한 용어 아직까지 함 이루지 못한
 채, 외 (posttraumatic growth; Tedeschi
 & Calhoun, 1996), 스트레스 련 (stress-
 related growth; Park, Cohen & Murch, 1996), 번
 영(thriving; Abraido-Lanza, Guier, & Colon, 1998),
 부산물(positive by-products; McMillen,
 Howard, Nower, & Chung, 2001),
 (adversarial growth; Linley & Joseph, 2004) 등으
 로 다양 게 용되고 으며, 국내 시
 학자들마다 다양 게 번 여 용 고 다.
 임선영 권 만(2012)
 처럼 trauma, adversity, stress 등을 아우르

념으로 '이 가 절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로 명명한다.
 연 여 학자들마다 용어
 달 고 지만 일 으로 다음 세 가
 지 영 변화 그 내용 비교
 공통된 견 제시 고 다(Lindy & Joseph,
 2004; Park et al., 1996; Tedeschi & Calhoun,
 1996). 첫 , 자 및 세 대한 지각 변
 화이다. 이 을 극복 을 통
 자신 대 이전보다 더 으로 가
 게 되고, 이 자신 력 강점
 을 게 발견 게 되 것이다. , 대
 변화이다. 이 람들
 자신을 더 러내고 을 면 타 으
 로부터 지지 을 게 되고, 이로
 요 이 가 로운 대
 양 을 보이게 되 것이다. ,
 생 변화이다. 이 삶 미 우선순
 위가 바 고 자신 삶 주변 람들 대
 느끼며, 신 존 느끼거나 음이
 광고 지 것을 미한다.
 영 을 미치 요 은 게
 자체 특 , 특 , 대한
 처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 수
 다. 첫 , 자체 특 은 건 중
 류, 건 심각 , 건으로
 부터 된 시 (임선영, 2013) 등으로
 이 특한 건 특 을 미
 한다. , 특 은 이 존 가
 지고 통 학 , , 지 특
 , 회 자 등으로, 선행 보고되
 고 려한 특 으
 로 별, , 영 , 력 , 회 지지
 자 , 등이 다. 영
 을 미치 세 번 요 은 대한 처

이다. 을 설명
 모 가 지지 모 은 Tedeschi
 Calhoun(2004) '외 모 ' 데, 이 모
 대한 처 을 살펴 수
 다.
 Tedeschi Calhoun(2004)은 존 가지고
 신념, 목 , 생 을 뒤흔들어 을
 만 을 가 다 미 및
 의 건을 지진 비 었다. 그들은 '외
 모 '을 통 외 이르
 을 통합 으로 제시 데, 모 을 살펴
 보면 다음 같다(그 1). 저 외 건을
 한 은 여러 가지 전 맞 다.
 의 건은 조절 어려 을 고,
 존 자신 및 세 려한 식을 모두
 뒤흔들며, 삶 이 뒤흔들게 된다. 이
 의 건 대 복 이고 자 으로
 을 투 가 일어나고, 이 투
 어느 조절할 수 게 되면 미
 거나 이 위 외 건 대
 이고 복 으로 고
 거 다. 시 고통스러운 을 주변
 람들 나누면 자 을 게 되고
 회 지지 게 된다. 자 및
 회 지지 , 작용 여
 대 신념을 록 돕고, 결국 로운 삶
 이 가 발달 고 시 삶 지 가 발
 달 외 을 이 다.
 그 데 여 요
 자체 특 은 우 가 선 거나 통
 제할 수 없고 입 여지가 당히 제한 이
 라 점을 고려 여, 나 지
 두 요 초점을 맞 었다. 저
 려된다고 보고되 ' 특 '
 최근 주목 고 변 이 바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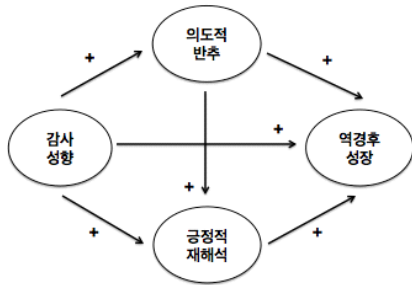
다. 이란 은 램들을 대 으로 한 선행 들 (Watkins Woodward, Stone, & Kolts, 2003)으로, 은 외 을 예 변 이 가지 지 이고 특 이다. 이었다(김 스더, 2015; Wu, Zhou, Liu, & Chen, 2014; Zhou & Wu, 2015). 그러나 램들 은 비교 특 이 로 단 차이가 존 데(임 , 2009), , 은 비교 특 이 로 단 이 은 램들은 일 생 더 변화시 어 고 치료 입 여 강 게 느끼고, 자주 며, 여러 가지 영 지가 제한 이 때문 , 이 , 그 고 한 건 련된 대 어떤 로 통 영 을 미치게 되 여러 램들 게 느 다(McCullough, 지 ' 대한 처 '을 함께 필요 Emmons & Tsang, 2002). 이처럼 이 가 다. 은 램들은 부 더 게 대한 처 을 설명 Tedeschi 고 삶 만 을 더 게 보고 며 Calhoun(2004) '외 모 ' 단 (원선 , 김교 , 이 , 2006), 외 을 한 나 영

을 끼치 요한 변 이라고 여러 학자들
 으로 명되어왔다.
 특 위 건을 한 이 그 건을
 이 고 결 며, 그 건 미
 이 을 발견 게 복 이고 목
 지 이다(Calhoun, Cann, Tedeschi, &
 McMillan, 2000). 을 위
 을 지 으로서 이 이 필수
 임을 때(Calhoun et al., 2000; Park &
 Fdkman, 1997), 을
 이루 테 어 우 요한 변 임을 수
 다. 자들은
 일 되게 지지 고 데, 별
 을 한 대학생들을 대 으로서 한 Taku,
 Calhoun, Cann Tedeschi(2008)
 투 심 고통을 가시 면,
 외 을 진 였다.
 Bower, Kemeny, Taylor Fahey(1998)
 면 결 (HIV) 양 남
 들이 죽음 대 지 , 으로서 생각
 것이 변화 려이 음이
 되었고, 국내 신선영 남운(2012)은
 삶 미가 진시
 을 예 한다고 였다.
 한편, Wu 등(2014)은 지진을 겪은 국
 소 을 대 으로서 , , 외
 냈 데, 은
 로 외 이르
 다. 또한 이 려 Zhou Wu(2015)가 세
 시점으로 나누어 가 으로서 중단
 시 을 때, 지진 첫 시점
 이 이 두 번 시점 에
 고, 이 마지 시점 외 을 예
 다. 이처럼
 , 미, 만 , 자부심, ,

같은 가 고-행 레 주
 을 시 응 진화 니 으
 로 지 을 시 다
 이 (broaden-and-build theory)으로
 부분 으로서 된다(Fredrickson & Branigan,
 2005; Johnson & Fredrickson, 2005).
 대한 처 요 게 다루
 어 할 또 다른 변 은 으로서,
 이 이전 부 으로서 여 것 대
 시각으로 아들에게 되 을
 미한다(Lambert, Graham, Fincham, & Stillman,
 2009). 공 으로서 응 위 가 요한
 것은 면을 것이고
 (Janoff-Bulman, 1992), 특히 을 되 어
 거나 건 발생을 통제 어려운
 일수록 으로서 것이 응
 우 요 다고 왔다(Mattlin, Wethington,
 & Kessler, 1990; Thompson, Nanni, & Levine,
 1994). 념은 흔히 '
 ' 또 ' 가로 명명되고
 데, Carver, Scheier Weintraub(1989)은 '
 '을 스트레스 대처 양식 나로
 설명 였고, 이 게 Gamefski, Kraaj
 Spinhoven(2001)은 ' 가 지
 조절전략 위 차 으로서 함시 다.
 부 건 대 시
 각으로 아들이고 미 부여
 을 ' '이라 용어로 일 되
 게 명명 였다.
 선행 들 따르면 을 한 람
 이 그 고통스러운 건 대 으로서
 할수록 을 이 다.
 이 초 그 건을 이 고 미 부여
 것은 이 고통으로부터 회복
 려되었고(Davis & Nden-Hoeksema, 2001),

별을 한 램들을 대 으로 요
 을 Gamino, Sewell Easterling(2000)
 죽음으로부터 결 아내
 것은 이 되었다.
 진 김영 (2013) 외
 의 이 지 조
 절 위 요 가만이 효
 나타냈고, 대학생 지
 이
 가 효 가 었다(임선
 영, 권 만, 2012).
 그 데 이 은 램들은 지
 조가 고, 자신 게 한 방 으로
 이 으 로(권선 등, 2006;
 Wood, Maltby, Stewart, Linley, & Joseph, 2008),
 이라 을 더라 그
 건 대 미 아내 할
 수 다. Lambert 등(2009)
 응집 (sense of coherence)
 이 완전 었고, Lambert,
 Findham Stillman(2011)은 이
 우울 이 함을 보여 주
 었다. 김 이 (2012)
 이 우울 미치 영
 지 조절 위 요 가
 가 부분 었고, 미 (2012)
 이 은 램들은 응 지
 조절 위 요 가 더
 많이 용함으로 이차 분 고 더
 게 었다.
 한편, 건으로 한 변화
 체화 고 미 단 련된
 다(Taku, Cann, Tedeschi, & Calhoun, 2009). 또한
 Calhoun Tedeschi(2006) 가 보다
 교한 삶 식 생 이 발전시

으로 을 진한다고 었다. 복
 지 은 건 대한 미 진
 한 점을 발견 게 함으로 을 진
 한다 것을 때(Taku et al., 2008),
 발히 것은 부 건 대
 을 가능 게 요한
 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
 이루어지지 않은 이다.
 Tedeschi Calhoun(2004) '외 모
 ' 가
 여할 것으로 가 여 로 설 었다.
 을 위 및 외 을
 지 으 로 이 이 필수 이 때문
 (Calhoun et al., 2000, Park & Folkman, 1997),
 ,
 것은 요 며, 더욱이 이
 두 변 은 변화 가능 이 치료
 입 예방 가 다. 또한 이전
 까지 초점은 주로 영
 을 미치 지 처 혹은 특
 나 만 국한되어왔 데, Tedeschi
 Calhoun(2004) 외 모
 ' 대한 처 '
 , 으
 로 할 뿐 아니라 어 한 특 을
 가진 램들이 이러한 을 통
 이르 지 다 점 이전
 들 차별화된다.
 그러 로 을
 한 특 대한
 지 처 을 함께 살피 으로 , 존
 통 진 변 들 조
 었다. , 을 한 만 40-60
 세 을 대 으로 ,



대한 조방 식 모 을 었다.
모 문제 다음 같다.

연구문제 1.

이 각각 효 가
가?

연구문제 2.

효 가 가?

방 법

위 을, , 남 지
거주 만 40-60세 650명
을 대 으로 자 보고식 설문조 시 었
다. 수거한 532부 설문지 불 게 응
한 17부(3%) 이 없다고 보고한
6부(1%) 자료 제외 었고, 가로
이 이 아 98부(18%) 제외
였다. 을 위
고 심각한 을 로(Fontana &

Rosenhack, 1998; Linley & Joseph, 2004), 임선영,
권 만(2012) 같이 심각 가 0
(전 심각 지 않음)이라고 보고한 6부(1%),
1(심각함)이라고 응 한 70부(13%) 분
대 제외 여, 최종 으로 335명(=
49.24세, "" = 6.14) 자료 분 었다.
대 통 학 특 을 살펴보면, 남자
147명(43.9%), 여자 188명(56.1%)으로 되었
다.

살펴 결 , 부
모 죽음이 160명(47.8%)으로 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제자 죽음이 33명(9.9%),
이혼이 29명(8.7%)으로 았다. 또한
심각 2점(심각함)이 113명(33.7%)으로
가 많았으며, 3점(당히 심각함)은 85명
(25.4%), 4점(우 심각함) 5점(아주 많이 심
각함) 각각 68명(20.3%), 69명(20.6%)으로 나
타났다. 시 은 5 미만이 107
명(31.9%)으로 가 많았고, 10 -15 미만이
87명(26%), 5 -10 미만이 41명(12.2%) 순
으로 많았다. 그러나 미응 자 87명(26%)으
로 많았다.

상실 험 관련 질문지

삶 및 외 건을 문지로
, Tedeschi Calhoun(1996) 외 건 목록
주 선 (2008) 외 체 스
트, 그 고 외 건 련 문지(승, 이
, 김교, 2009) 초로
을 게 7가지(가까운 , 학
및 , 제 어려 , 학대 및 가혹행
위 , 대 어려 , 고,
및 심각한 , 가 이나 가까운 지

고 및 , 타)로 자가 분류 여 제 시 고, '자신 삶 겪은 가 권'을 선 게 었다(복선 가능).

제시된 7가지 '가까운 '을 보고한 자료만을 분 었 데, '가까운 '을 선 한 람들 게만 가 으로 Sofka(1997) 체 스 트 죽음 (부모 죽음, 제자 죽음 등) 단절 (이혼, 부모 이 혼, 어 등) 어떤 당 지 시 게 었고, 시 을 작 록 었다.

을 위 존 신념체 뒤흔들 만 심각한 고통 이 수 되 것으로 려 왔 때문 (Fontana & Rosenheck, 1998; Linley & Joseph, 2004; 임선영, 권 만, 2012 용), 가 으로 권으로 한 심각 (0 전 심각 지 않음 5: 우 심각함) 조 여, 2점 미만 우(0 전 심각 지 않음, 1: 심각함) 제외 었다.

감사성향

을 위 McCullough 등 (2002)이 발 고 권선 등(2006)이 수 , 번 타당화 한 한국 (K-CQ-6) 용 었다. 이 강 , , 위, 며 6문 으로 된 다(예, 내 삶 할 거 들이 우 많다). 7점 로(1: 전 그 지 않다 7: 우 많 이 그 다) 며, 부 문 은 채점 점수가 을수록 이 음을 미한다. 단일 차 이 로, 조 방 식 분 을 위 Cattell Burdsal(1975)이 제 한 방 고 방식 따라 문 음

화(item parceling) 시 여 세 가지 위치 (1, 2 3) 변 들로 었 다. 대학생을 대 으로 한 권선 등(2006) 내 합치 (Cronbach's) .85, 여 을 대 으로 한 류위자(2012) 내 합치 (Cronbach's) .84였고, 전체 문 내 합치 .88로 나타 났다.

의도적 반추

Cann 등(2011)이 발 고 , 주 선, 지 , 심 선(2013)이 대학생을 대 으로 번 , 타당화 한 한국 권 런 (K-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K-ERRI) 10문 을 용 었다.

뿐 아니라 권 이 부터 지금까지 을 물어보 위 모 문 은 거 으로 수 었고(예, 권을 통 내가 어떤 것을 배 가 대 생각 보았다), 4점 (0 전 지 않았다 3 자주 그 다)로 여 점수가 을수록 양식을 더 많이 용한다고 한다. 단일 차 이 때문 방 고 방식으로 문 음화(item parceling) 시 여(Cattell & Burdsal, 1975) 세 변 (1, 2 3)으로 었다. 등(2013) 10문 내 합치 (Cronbach's) .95였고, 을 대 으로 한 이 (2015) .96 .92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재해석

Gamefski 등(2001) 지 조절 전략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김소 (2004)가 번 고, , 이

나, 주 선(2013)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타당화한 지 조절 전략 가위 용 었다(예, 건 면을 아보았다). 4문 으로 5점 (1: 거 그 지 않다 5 거 그 다)로 되며, 점수가 을수록 가 많이 함을 미한다. 조방 식 분 을 위 단일요 문 들을 방 고 방식으로 문 음화 (item parceling) 시 여(Cattell & Burdsal, 1975) 두 변 (1, 2) 으로 었다. 등(2013) 내 합치 (Cronbach's) .89였고, 이 (2015) .93 .91로 나타났다.

후 성장

Tedeschi Calhoun(1996) 의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 승 등(2009)이 변, 대학생 일 을 대 으로 타당화 한 한국 의 (K-PTGI) 용 었다. 이 자 지각 변화, 대 이 가, 로운 가능 발견, 영 종교 심 가 4가지 위 로 되며 16문 으로 이루어 다(예, 나 어려 을 극복할 수 다 신을 게 되었다). 6점 (1: 변화 거 지 못 었다 6 변화 우 많이 었다)로 며, 점수가 을수록 변화 더 많이 한 것을 미한다. 승 등(2009) 내 합치 (Cronbach's) .91이었고, 이 (2015) .95 었다, 전체 내 합치 .95, 각 위요 내 합치 자 지각 변화 .91, 대 이 가 .91, 로운 가능 발견

.83 영 종교 심 가 .74로 나타났다.

SPSS 22.0 로그 을 용 여 통, 분 을 시한, 효 아보 위 M-plus 7.0 로그 을 이용 여 조방 식 모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을 시 고, 효 을 아보 위 Sobel test 시 었다.

결 과

문제 앞 초자료로, 최고점수 최저점수, 편 차 산 었으며, 변 규 가 을 위 산 었다. Kline(2005)은 절대 이 3 이, 절대 이 10 이 우 규 가 을 위 한다고 었으며, 변 들은 규 가 을 었다. 통 결 1 제시 었다.

변 들 련 을 아보 위 분 을 시한 결 (2), 모 변 들은 전 으로 보통 수 미한 을 보였다. 모 변 들은

가능한 점수 위	점수 위		편차		
6-42	13-42	33.64	6.24	-.80	-.02
0-30	0-30	19.41	5.90	-.00	-.19
4-20	4-20	13.62	3.84	-.25	-.46
16-96	20-96	64.73	14.71	-.26	-.33

	1	2	3	4
1.	1			
2	.41**	1		
3	.48**	.61**	1	
4	.58**	.59**	.70**	1

** < .01, * < .05

모 변 ($r = .31$ -.40, $p < .01$),
 모 변 ($r = .38$ -.44,
 $p < .01$) 한 을 보였으며,
 모 위요
 가 나타났다($r = .33$ -.56, $p < .01$).
 모 변
 미한 이 되었고($r = .54$ -.60,
 $p < .01$),
 위요 을 보였다($r = .37$ -.62,
 $p < .01$).
 모 위요 들 미한
 가 나타났다($r = .43$ -.70, $p < .01$).

측정모형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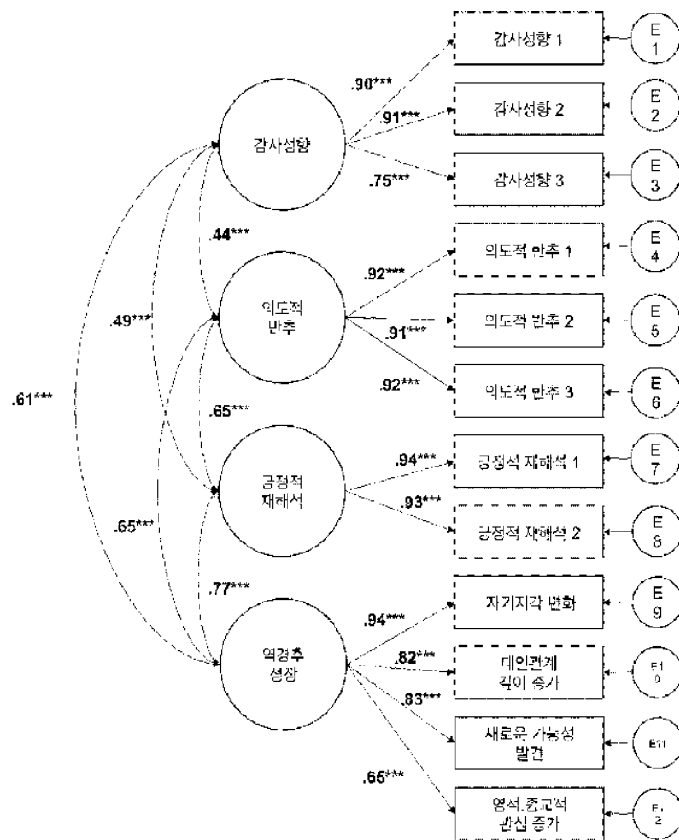
조모 분 앞 변수들이 각각

변 을 절 계 영 지
 위 Anderson Gerbing(1988) 2단 방
 식 초 모 요 분 을
 시 었다.
 조방 식 모 을 가할 때 일 으
 ,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r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그 고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함께 용 데,
 RMSEA 우 0.05 이 면 합 가 은 모
 , 0.08 이 면 절한 모 , 0.10 이 이면
 나 모 으 로 주된다(Browne & Cudeck,
 1993). Bentler(1990) TLI CFI가 0.9 이 일
 때, Hu Bentler(1999) CFI가 0.95 이 ,
 SRMR이 0.08 이 일 때 은 모 이라고 였
 다. 모 결 χ^2 이
 148.267(df= 48, $p < .001$), 절대 합 지수
 RMSEA가 .079(90% 신 .065-.094),

SRMR은 .043, 대 합 TLI CFI 지
 각각 .960, .971로 나타나 모 전 위 모 을 설 여 이 었
 합 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다.
 화된 요 부 이 .30이 이어 한 이 148.267($df=48$, $p<.001$), RMSEA가
 다 (Hair, Anderson, Tatham, & Black, .079(90% 신 .065~.094), TLI CFI
 1992) 시 모 변 만 되었으 각각 .960, .971이며 SRMR은 .043으로 나타
 로 12 변 으로 4 이 변 났다. 이 모 이 자료 특 을
 을 한 것이 타당 다고 수 다. 절히 영함을 미한다.

구조모형의 분석

이 통 모 모수 치 각 로 수
 을 그 3 3 제시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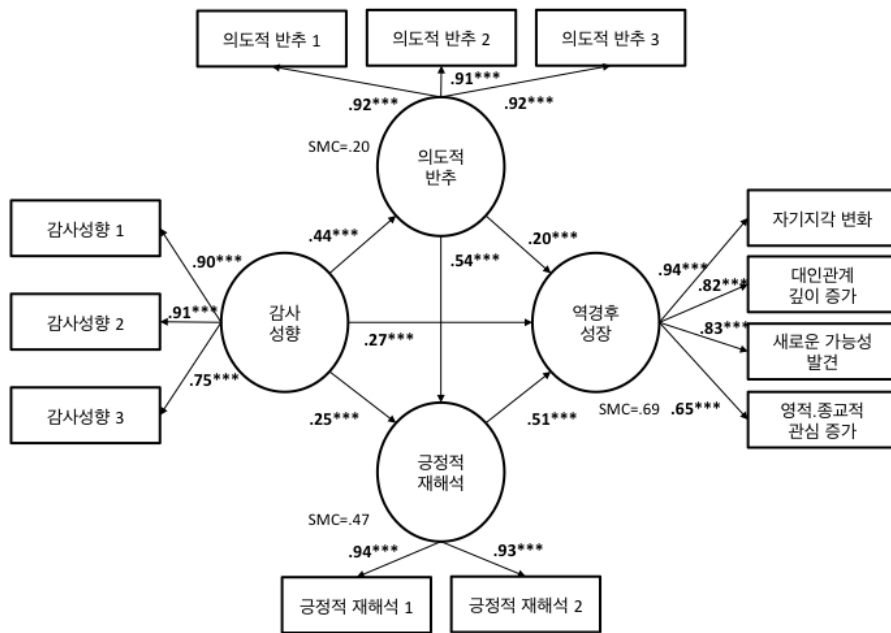


*** $p<.001$, 주. 그 제시된 수 화된 수치임.

로	비	화	오차	화
->	.24	.03	.44***	
->	.23	.04	.27***	
->	.23	.05	.25***	
->	.32	.08	.20***	
->	.88	.09	.54***	
->	.49	.05	.51***	

*** $p < .001$

저 이 로 가 로가 으로 이어지
 으로 미 었 데($r = .44, p < .001$), 로 으로 미 었 데($r = .25, p < .001$),
 이 을수록 많이 함을 .001), , 이 을수록
 수 었다. 또한 을 더 많이 한다고 수 다. 또한
 로 시 미 여($r = .20, p < .001$), 로 시 미
 많이 할수록 을 더 여($r = .51, p < .001$), 을 많이 할
 많이 한다고 수 다. 수록 을 더 많이 이



*** $p < .001$, 주. 그 제시된 수 화된 수치임.

음을 수 있다. 으로 가 직 로 시 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 = .27, p < .001$), 마지막으로 으로 이어지 로 로 수가 으로 미 여($r = .54, p < .001$), 많이 할수록 을 더 많이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이 SMC)은 내생변수가 그 내생변수 영 을 미치 다른 변수들 설명되 비 을 미한다. 산 된 SMC 따르면, 20%, 은 47%, 은 , , 69% 설명되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효 을 위한 Sobel test 결 , 가 였으며($t = 3.513, p < .001$), 이 것으로 나타났다($t = 4.308, p < .001$). 다변 타 방 을 이용 이 효 한 결 , 이 을 차 로 거쳐 영 을 미치 로 시 통 으로 였다($t = 5.181, p < .001$).

논 의

이 효 나타 내 지 아보고자 였다. 저 주요 변 들 분 한 결 , 선행 들 같이 은 , 그 고 변 , 이 였다. 또한 은 , 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이 여, 모 변 한 련 이 음을 였다. 다음으로 변 들 조 위 조방 식 모 분 을 시 였 다. 그 결 , 모 은 절한 수 합 보였고 모 로가 통 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 존 들(김 스더, 2015; Algoe, 2005; Peterson et al., 2008; Wu et al., 2014; Zhou & Wu, 2015) 마 가지로, 으로 가 직 로 가 였다. , 을 한 들은 이 을수록 더 은 수 을 였다. 이 은 램들이 다양한 특 을 더 많이 가지며 삶 만 을 게 보 고한다 되며(권선 등, 2006), 은 을 가진 램들이 외 을 한 더 른 회복 을 보 다 선행 지지 결 이다(Gorden et al., 2004; Kashdan et al., 2006).

로 가 로 시 으로 였다. , 이 강 할수록 이라 건 미 이 위 이러한 외 혹은 대 으로 더 많이, 복 으로 생각 것으로 나타났다(Wu et al., 2014; Zhou & Wu, 2015). 이 - 이 (broaden-and-build

theory) 주 대로, 같은 가 다양한 방 으로 문제 록 행 을 화시 며(Fredrickson, 1998), 문제 결 능력 지 을 시 (Bdte et al., 2002 Isen et al., 1987) 결 라고 할 수 을 것이다.

으로 가 로 시 였 데, , 이 을수록 대 시각으로 바라 보고 로운 미 부여 려 이 강 게 나타났다. 이 이 을 진시 다 선행 들(김 , 이 , 2012 미 , 2012 Lambert et al., 2009, Lambert et al., 2011) 일치 데, 이러 한 결 이 은 람들이 이 마나 다행 지 복 으로 식 며, 행복 만 치가 고 이 화 되어 지 않아 순 자신이 처한 어떤 미나 함을 으려고 력 때 문이다(Emmons & McCullough, 2003). 이러한 특 으로 , 람들은 자신 삶 려된 건들 대 단순히 혹은 부 으로 식 보다 부 건임 이 통 이고 한 무 을 얻었다고 보 으로 결시 이 고(McAdams Reynolds Lewis Patten & Bowman, 2001), 결국 자신이 한 대 미 부여 게 될 것이다.

한편, 으로 가 로, 으로 가 로 모두 였다. 이러한 결 외 대한 심 고가 외 발시 고(Morris et al., 2005), 대 일부러 복 으로 생각 고 그 건 대 발히 직면 것은 심 을 가

다 외국 결 (Hogan & Schmidt, 2002 Pennebaker et al., 1988 Stroebe et al., 2007; Tedeschi & Calhoun, 1996) 일치한다. 또 한 이 그 건 결 나 미 아내 것이 이 된다 것(Gamino et al., 2000)은 한국 들 게 그대로 용되었다. 이 죽음이나 이별 등 아 처 대 가 지 않 것을 미 으로 생각 양 문화권 특 (Markus & Kitayama, 1991) 불 고, 이러한 대 극 으로 고 으로 것이 제 응 이 된다 은 요한 미 지 다고 할 수 을 것이 다.

미 게 으로 가 로 모 모 로 가 강력한 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 가 거 전무한 가운데, 이라 대 많이 할수록 그 건 대한 을 더 많이 게 되 이 음을 할 수 었다. 이러한 려 은 건 대한 가 미 단 려된다 선행 (Taku et al., 2009) 결 라고 수 으며, 통 보다 대 신념을 게 되고 로운 삶 이 발전시 으 로 을 진한다 외 모 (Calhoun & Tedeschi, 2006) 지어 생각 수 다.

을 한 이 대한 고 직면 지 않고 회 것은 건 대 으로 것 대비되

념으로 수 다. 그 데 이러한 애 회
 대한 미 고 로운 점을
 것을 방 여 더 은 수 을
 보이며(Kashdan & Kane, 2011), 이
 대 부분 으
 로 근거 제시한다고 수 다.
 라 지 이 건 대한 미
 진 한 점을 발견 게 함으로 을
 진한다 선행 (Taku et al., 2008) 통
 나타 이 두 번
 으로 할 수 을 것이다.
 마지 으로
 효 가 통 으로 한지 위
 Sobel test 시 었다. 그 결
 단순 효 이
 효 가 모두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건 대한 또
 을 여
 여 게 될 뿐 아니라, 이
 영 을 미치고 가 다시
 영 을 미쳐 영
 을 수 다 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조방 식 모 분 결 진 이러한
 결 들은 을 한
 을 모 위 어떤 입전략
 이 효 일 지 대 용한 보 제공한
 다. 저 직, 으로
 영 을 미치 진은 우
 요할 것이다. 은 최근 강점
 나로 주목 고 으며, 비교 특
 이여 입 여지가 지 않지만 다른
 특 비 변화시 수 여지가
 다. 으로 더 자주 지
 람이라고 더라 ' 태'로

느끼 순 은 으며(Adler & Fagley, 2005),
 ' 은 복을 세어보 ' 같은 단한
 진 로그 을 통 고양이 수 다(임 ,
 2009) 것을 때, 일 생 더
 자주, 강 게 려 력을 통 이
 진시 수 치료 입이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라 특
 은 단 변화시 어 고, 그 따른
 치료 입 제한점을 지 다. 따라
 을 진시 입 이외 그러한 특
 이 어 게 이르 지 그 제
 이 여 입 것이 보다 효 일 것
 이다. 결
 은 각
 각 거나 가
 영 을 미 으로 여한
 다 것이 되었다. 이러한 결 을
 위 및 외 을 지 으로 이
 이 필수 입을 다시 한 번 강조
 며(Calhoun et al., 2000; Park & Folkman, 1997),
 이라 지 처
 을 진시 것이 을 가
 을 수 효 입 전략임을 수
 다.
 같은 스트레스 건을 한
 내 자가 고통을 소할 때, 그 건 대
 으로 올 고 미 부여
 은 우 일 수 다.
 그러나 그러한 은 오히려
 을 이룰 수 회가 되 한다 점
 , 조화되고 지지 치료 을 제공
 고 내 자가 건으로부터 미
 발견 수 록 전문 을 제공
 것은 우 요 다고 할 수 다. 이

런 및 입 치료 외 런
 내 자들 게 용되고 이 치료
 (narrative therapy), 자신 을 복 으
 로 생각 고 그 로운 미 부여
 을 통 보다 많은 람들이
 을 할 것으로 대된다.
 지금까지 외 혹은 한 대부분
 들은 다양한 외 을 분 지 않은
 채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각 다른
 은 그 종류 따라 게 미치 영 이
 다 수 다. 특히 이라
 체 을 한 대 으로 한 여
 진행 다 점 존 차별
 화된다. 게다가 까지 런된
 주로 입 집단 혹은 대학생 위주로 진행
 되었을 뿐 일 을 대 으로 한
 아보 들었다. 그러나
 살아가면 을 더 많이 고, 그 영
 력 또한 심각할 것으로 예 되 을
 대 으로 였다 점 가
 다. 마지 으로 영 을 미치
 특 대한 지 처
 을 함께 고려 여 이 변 들 조
 다 가 다. 특히 은
 다른 특 비 비교 변화 가능 며,
 은 변화
 가능 이 때문 이들 으
 로 효 입진략을 수 데 근거
 제공 였다.
 그럼 불 고 결 다음
 제한점들을 고려 여 신 히 할 필요
 가 다. 저 을
 로 한 시 단일화 였으나 대
 , 심각 , 시 은 차이가
 게 나타나 이 따른 차이분 까지 시

지 못 였다. 따라
 체 종류, 대 같은 자체 특
 을 분 여 런된 특 을
 필요가 다. 또한 자 보고
 식 설문지만을 용 여 보 수집 였 데,
 모 들이 내용으로 되어
 어 회 으로 바람직한 방 으로 응 을
 가능 이 다. 제 3자
 함께 용 거나, 회 바람직 을
 가 들을 함시 결
 타당 을 할 필요가 다. 마지 으로
 특 로
 을 가 고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로
 특 로 을
 분 데 어 학자들 건이 함치되지
 못 고 이라 것을 지 고자 한
 다(임 , 2009). 따라 이
 러한 차이 분 방 을 고 여,
 로 이라 특 이
 영 을 미치 것 지 혹은 로
 가 가 것 지
 분 여 필요가 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선 , 김교 , 이 (2006). 한국
 (K-GQ-6) 신 및 타당 .
 (1), 177-190
 김소 (2004).
 가 대
 학교 학위논문.
 김 스더 (2015).
 신여자대학교 학위

-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alhoun, L. G., Cann, A., Tedeschi, R. G., & McMillan, J. (2000). A correlation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religion, and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3), 521-527.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6).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An expanded framework. In L. G. Calhoun & R. G. Tedeschi (Eds.),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pp. 3-23). Mahwah, NJ: Erlbaum.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Triplett, K. N., Vishnevsky, T., & Lindstrom, C. M. (2011). Assessing posttraumatic cognitive processes: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4(2), 137-156.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67.
- Cattell, R. B., & Burdick, Jr., C. A. (1975). The radial parcel double factoring design: A solution to the item-vs-parcel controvers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7(2), 165-179.
- Davis, C. G., & Nolen-Hoeksema, S. (2001). Loss and meaning: How do people make sense of 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5), 726-741.
- Emmons, R. A., & McCullough, M. E. (2003). Counting Blessings Versus Burden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ail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377-389.
- Fontana, A., & Rosenheck, R. (1998). Psychological benefits and liabilities of traumatic exposure in the war zon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1(3), 485-503.
- Fredrickson, B. L., & Branigan, C. (2005). Positive emotions broaden the scope of attention and through-action repertoires. *Cognition*, 96(3), 313-332.
- Frijda, N. H. (1988). The laws of emotion. *Cognition*, 21(3), 349.
- Gaming, L. A., Sewell, K. W., & Easterling, L. W. (2000). Scott and White Grief Study Phase 2: Toward an adaptive model of grief.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7), 633-660.
- Gam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3), 1311-1327.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2). *Multivariate data analysi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2), 1-55.
- Janoff-Bulman, R. (1992). *Hurting and being hurt: The psychology of self-blame*. New York: The Free Press.
- Johnson, K. J., & Fredrickson, B. L. (2005). "We All Look the Same to Me": Positive Emotions Eliminate the Own-Race Bias in Face

- Re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11), 875-881.
- Kashdan, T. B., & Kane, J. Q. (2011). Post-traumatic distress and the presence of post-traumatic growth and meaning in life: Experiential avoidance as a moder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1), 84-89.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ambert, N. M., Fincham, F. D., & Stillman, T. F. (2011). Gratitude and depressive symptoms: The role of positive reframing and positive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4), 615-633.
- Lambert, N. M., Graham, S. M., Fincham, F. D., & Stillman, T. F. (2009). A changed perspective: How gratitude can affect sense of coherence through positive refra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6), 461-470.
- Levinson, D. J., Darrow, C. N., Klien, E. B., Levinson, M. L., & McKee, B. (1978). *Season of life*. New York: Knopf.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1), 11-21.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4-253.
- Mattlin, J. A., Wethington, E., & Kessler, R. C. (1990). Situational determinants of coping and coping effe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1), 103-122.
- McAdams, D. P., Reynolds, J., Lewis, M., Paten, A. H., & Bowman, P. J. (2001). When bad things turn good and good things turn bad: Sequences of redemption and contamination in life narrative and their relation to psychological adaptation in midlife adults and in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4), 474-485.
-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 A.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112-127.
- McMillen, C., Howard, M. O., Nower, L., & Chung, S. (2001). Positive by-products of the struggle with chemical depend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1), 69-79.
- Morris, B. A., Shakespeare-Finch, J., Rieck, M., & Newbery, J. (2005). Multidimensional nature of posttraumatic growth in an Australian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5), 575-585.
- Park, C. L., Cohen, L. H., & Murch, R. L.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106.
- Park, C. L. & Folkman, S. (1997). Meaning in the context of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115-144.
- Sofka, C. J. (1997). Loss History Checklist. In J. D. Manino (Ed), *Life after loss* (2nd ed., p.20). Boston: Allyn & Bacon.
- Taku, K., Calhoun, L. G., Cann, A., & Tedeschi, R. G. (2008). The role of rumination in the coexistence of distress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bereave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5), 428-444.
- Taku, K., Cann, A., Tedeschi, R. G., & Calhoun,

- L. G. (2009). Intrusive versus deliberate rumination in posttraumatic growth across US and Japanese sampl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2(1), 88-95. doi:10.1007/s10976-008-9155-1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 and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93-102. doi:10.1007/s10976-003-9139-8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4), 455-471. doi:10.1007/s10976-003-9139-8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5).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8(1), 1-16. doi:10.1007/s10976-003-9139-8
- Thoms, P. A. (1995). Identity-relevant events and psychological symptoms: A cautionary tal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8(1), 72-82. doi:10.1007/s10976-003-9139-8
- Thompson, S. C., Nanni, C., & Levine, A. (1994). Primary versus secondary and central versus consequence-related control in HIV-positive me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7(4), 540-547. doi:10.1007/s10976-003-9139-8
- Watkins, P. C., Woodward, K., Stone, T., & Kolts, R. L. (2003). Gratitude and happiness: Development of a measure of gratitude, and relationships with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6(4), 431-451. doi:10.1007/s10976-003-9139-8
- Whitbourne, S. K. (2001). The physical aging process in midlife: Interactions with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factor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1), 109-155. doi:10.1007/s10976-003-9139-8
- Wood, A. M., Maltby, J., Stewart, N., Linley, P. A., & Joseph, S. (2008). A social-cognitive model of trait and state levels of gratitud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1(2), 281. doi:10.1007/s10976-003-9139-8
- Wu, X., Zhou, X., Liu, L., & Chen, J. (2014). The Effect of Gratitude among the Adolescents of the Wenchuan Earthquake on Their Post-traumatic Growth: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Support and Deliberate Rumina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7(5), 1148-1153. doi:10.1007/s10976-003-9139-8
- Zhou, X., & Wu, X. (2015).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gratitude, deliberate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in adolescents following the Wenchuan earthquake in Chin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8(1), 102-112. doi:10.1007/s10976-003-9139-8

1차 고수 : 2016 01. 13
수고수 : 2016 02. 20
최종결 : 2016 02. 29

The Mediating Effects of Deliberate Rumination and Positive Reframing between Gratitude Disposi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Study of Middle-aged Adults with a Relational Loss

Ahra Kim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 among gratitude disposition, deliberate rumination, positive reframing and posttraumatic growth following a relational loss among middle-aged adults. The data consisted of the survey results of 335 adults between 40 and 60. The results of structuring equation modeling(SEM) analysis indicated that deliberate rumination or positive reframing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gratitude disposi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The dual-mediating effect of deliberate rumination and positive reframing was also significan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gratitude disposi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for middle-aged adults who have experienced a relational loss.

M2 A&fj. @B-#)1&#N&./Li#)1fi_t °),~8)1&# ° \$>+1_t B' <)%#1&# O&11# <#)1(Li&A16